

# 선거제 패스트트랙 상정...여야 대충돌



정치 브리핑

## 긴급피난 핑계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

정인화, 수상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약천후시 긴급 피난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발의를 앞둔 사법개혁 법안들의 조율 작업을 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오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투입되는 채이배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전날 밤부터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회의장들을 잠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인화 의원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조업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 긴급피난을 빌미로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어선이 긴급피난할 수 있는 항포구를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업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한국 '회의장 점거' 민주 '비상대기령' 바른미래 오신환 교체 사보임 신청 제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25일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치달았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고, 한국당은 이에 맞서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면서 양측은 서로 물리칠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형국이다.

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모여 인편 접수를 저지함에 따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했다.

문 의장이 전날 오 의원 사보임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과의 마찰 끝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병상 결재'가 이뤄졌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오 의원 사보임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과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하태경 의원은 문 의장이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을 향의 방문차 찾았으나 문 의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면담은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D데이'를 맞아 전열 재정비에 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상하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대비해 해당 특위 위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오전에 사개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전략을 가다듬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발의를 앞둔 사법개혁 법안들의 조율 작업을 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오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투입되는 채이배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전날 밤부터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회의장들을 잠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장소 좀 알려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오른쪽)이 25일 국회 운영위 회의장 앞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부근을 지나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사개특위 회의 장소 및 시간을 /연합뉴스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는 20대 국회 운영의 주도권과 입법전쟁을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간의 힘겨루기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분수령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 부족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였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다만 당 지도부는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이

## 목포·영암 조선산업 지원 추경 편성 환영

윤소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될 것”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5일 정부가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조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총 13개 사업, 총 69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목포·영암은 산업위기지역 재지정과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 보완 대책 발표에 따른 추경 예산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숨통이 일부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영암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도의 조선산업 지원 내용은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센터 14억7,000만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 10억원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금 10억원이다. 이와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연장이



정된 세군데 지역에 ▲친환경 스마트선박 R&D전문인력 양성 6억 2,000만원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센터 12억 8,000만원 ▲LNG화물창 전문인력양성 45억원이 편성돼 목포·영암지역 조선업 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의원은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 기간 연장조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대책이 함께 발표되고 관련 추경 예산도 함께 배정된 만큼 조선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내분격화...바른미래 분당 수순 밟나

유승민계 “지도부 탄핵·불신임 묻겠다” 강력 경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25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사보임 강행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당 지도부가 바른정당계는 물론 일부 국민의당계의 강한 반발에도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강행한 것은 ‘한 지붕 세 가족’ 체제의 결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유승민계’로도 불리는 바른정당계, 국민의당 출신 가운데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안철수계’와 호남에 지역 기반을 둔 ‘호남계’ 등으로 나뉘어 있다.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손학규 대표 퇴진론에 이어 패스트트랙갈등을 빚으며 분화 양상은 더욱 뚜렷하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필두로 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극렬히 반발,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일단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2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 대표의 탄핵과 기관영 원내대표 불신임을 물을 계획이다.

바른정당계 관계자는 “탄핵·불신임이 규정상 구속력은 없지만, 가결된다면 모두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안철수계 인사들 역시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분열상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날 ‘오 의원 사보임 반대’ 문건에 서명한 의원은 총 13명으로, 바른정당계 의원 8명 외에도 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로 분류된 의원 5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수개월 간 당내 다수 지지를 기반으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킨 만큼 기세를 몰아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유승민 의원은 꼭두각시들을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는 작심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청와대 새 대변인에 고민정

문 정부 첫 여성 대변인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고가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후임에 고민정(40) 부대변인을 임명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9일 발표했다.

고 신임 대변인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3번째이자 현 청와대 첫 여성 대변인으로 기록되게 됐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



을 임명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 하나로,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총괄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의 가장 젊은 여성 비서관인 고민정은 여러 세대, 다양한 계층과 잘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신축 원룸 매매

- ☑ 광산구 산정농협 뒷 1분 (코너)
- ☑ 1층 - (상가)  
2층 - (원룸5개), 3층(원룸5개)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매가 8억5천만 (용2억5천, 보 1억)

062-382-5500 010-6670-9800

## 오피스텔 [급매]

-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 (주거·사무실가능 / 방 2개 가능) 23평
- ☑ 전체 올수리, 내부 깨끗
- ☑ 보 500만 월 50만 (노후대비)

▶ 시세 1억3천 급매 8천400만 (용3천만)

062-382-5500 010-6670-9800

## 경매 교육

- ① 기초실전반
- ② 실전투자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적)
- ③ 사무실 함께 쓰실분 (전문반) 주 1회 스터디 (기초 실전반-특별반) → 매주 개강

## 법률 경매

1. 상무지구 7층 중 6층 (전용 60평) ▶ 감평가 4억 → 최저가 1억4천6백
2. 광산구 신가동 (원룸빌딩) (토 110평, 건171평) ▶ 감평가 8억1천7백 → 최저가 5억7천2백
3.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감평가 2억4천 → 최저가 8천8백만
4. 북구 용봉동 (다가구원룸) (토 80평, 건165평) ▶ 감평가 5억9천만 → 최저가 4억1천5백만
5. 서구 농성동 (주유소) (토 246평, 건 278평) ▶ 감평가 15억5천 → 최저가 15억5천

062-382-5500